

# 제약, 음료수 장사 크게 위축

## 제약협회, 자양강장변질제 생산 6.8% 감소 ... 성인병은 급증

동맥경화, 당뇨병 등 성인병 질환 치료 목적인 의약품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제약협회(회장 김정수)가 7월19일 발표한 <2004년 약효군별 생산실적>에 따르면, 2004년 동맥경화용제 생산량이 2911억원으로 2003년 1947억원에 비해 49.5%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.

이어 간질발작 억제용인 항간전제는 1083억원으로 2004년 783억원에 비해 38.2%, 혈압강하제는 5303억원으로 2004년 4021억원에 비해 31.9%, 당뇨병용제는 1958억원으로 2004년 1550억원에 비해 26.3%, 혈관확장제는 1117억원으로 2004년 986억원에 비해 18.8% 증가했다.

반면, 항히스타민제는 1002억원으로 7.7%, 자양강장변질제는 2868억원으로 6.8%, 백신류는 1308억원으로 2.5% 감소했다.

2001년에 비해서는 동맥경화용제 생산량이 2.4배 늘었고 당뇨병용제는 116.6%, 항간전제는 97.6%, 혈압강하제는 75.1%, 혈관확장제는 73.2% 증가했다.

<화학저널 2005/07/21>